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주간 2017. 02. 06. ~ 2017. 02. 12.

# 전남농업정보

123

VOL

## 기상전망

### 농산물 주간 동향 (관측정보)

- 품목별 동향 및 전망
- 견고추 생산 및 산지동향, 가격동향, 수급대책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국산 『라온파프리카』 종자 외국서 러브콜

###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울금과 비파열매를 이용한 발효기술 실용화 추진
- 입춘 지났으니 맥류 봄 파종으로 소득 올리세요

### 정책동향

- 농식품 가공기업에 1% 저리 융자 혜택
- 전남도, 여성 농업인 전문 인력화 나선다

### 사업신청 및 홍보

-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전문농업인 육성 교육 개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 요 약

### ❁ 주간 기상전망 ..... 5

- ▶ 기압골의 영향으로 17일과 20일에는 비가 오겠으며, 그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3~2도, 최고기온:8~1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음
- ▶ 강수량은 평년(2~3mm)보다 조금 많겠음

### ❁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 8

- ▶ 품목별 동향 및 전망 (2017. 02. 07.~ 02. 13.)
- ▶ 건고추 생산 및 산지동향, 가격동향, 수급대책

###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10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12

- ▶ 순천시, 매실농가 날씨·재해 정보, 미리 문자메시지로 받아본다
- ▶ 나주시, 결혼이주여성 아이디어로 출시된 『구기자배즙』 화제
- ▶ 곡성군, 토란 향토산업 육성사업 가속페달
- ▶ 해남군, 맥류 파종 지금이 적기! 2월 하순까지 완료하세요
- ▶ 무안군, 식감 좋고 산뜻한 『무안 세발나물』 겨울철 입맛으로 인기
- ▶ 완도군, 『완도자연그대로』 해변딸기 본격 출하
- ▶ 영광군, 월동 후 맥류 재배관리 현장기술 지도 나서

##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19

- ▶ 국산 『라온파프리카』 종자 외국서 러브콜

## ❁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20

- ▶ 매실 해충 복숭아씨살이좀벌의 발생생태 및 방제적기
- ▶ 착색단고추 연중생산 질소 감비 양액조절 방법
- ▶ 황금 GAP 지침설정을 위한 노지고휴 피복재배 효과
- ▶ ICT 복합환경 제어시스템 확산을 위한 농업인의 수용 의도 분석
- ▶ 울금과 비파열매를 이용한 발효기술 실용화 추진
- ▶ 2017년 영농현장 『농작업도 여성』 시대
- ▶ 논에 풀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봄 파종 하세요
- ▶ 입춘 지났으니 맥류 봄 파종으로 소득 올리세요
- ▶ 월동기 이후 마늘 · 양파 주요 관리기술
- ▶ 블루베리 과일 크기 키우면 경영비↓ 소득↑
- ▶ 과수재배 농가, 나무 심을 준비하세요

## ❁ 정책 동향 ..... 33

- ▶ 농식품 가공기업에 1% 저리 융자 혜택
- ▶ 전남도, 여성 농업인 전문 인력화 나선다
- ▶ 전남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100억 투입

- ▶ 농촌진흥청, 아시아 유전자원관리 전문가 양성한다
- ▶ 우리 농업기술로 캄보디아 최초 감자재배 성공
- ▶ 농식품부, 식량원조협약(FAC) 연내 가입 추진
- ▶ 해외 곡물시장 동향 '17. 2. 13.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시카고 선물 거래소 밀 선물 가격은 전일의 상승세를 이어가며 1.3% 상승 마감하였음.
  - 옥수수 :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옥수수 선물 가격은 목요일 하락세를 보인 이후 다시 회복세를 보이며 전일대비 1.4% 상승 마감하였음.
  - 대두 : 시카고 선물 거래소 대두 선물 가격은 수급보고서에서 수확량 감소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장초반 하락하였으나 다시 상승세를 회복하며 전일대비 0.8% 상승 마감하였음.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 ·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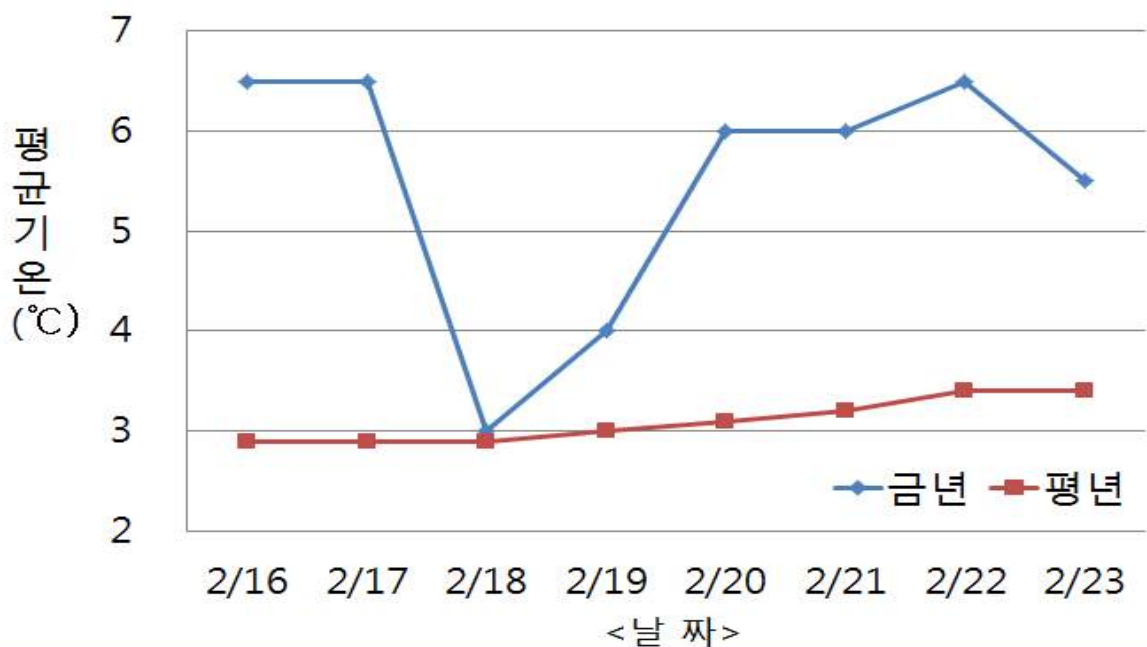
- ▶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전문농업인 육성 교육 개시
- ▶ 전남농기원 · 광주과학기술원과 연구개발 업무협약 체결
- ▶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 24절기 가운데 두 번째 절기 우수 (雨水)

# 1. 주간 기상전망

## ■ 기상청 중기예보(광주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5.5	3.1	2.4	9.9	8.5	1.4	1.1	-1.3	2.4	2.0
2. 16.(목)	6.5	2.9	3.6	14.0	8.3	5.7	-1.0	-1.4	0.4	1.6
2. 17.(금)	6.5	2.9	3.6	8.0	8.2	-0.2	5.0	-1.3	6.3	1.7
2. 18.(토)	3.0	2.9	0.1	8.0	8.4	-0.4	-2.0	-1.3	-0.7	1.6
2. 19.(일)	4.0	3.0	1.0	10.0	8.3	1.7	-2.0	-1.3	-0.7	1.6
2. 20.(월)	6.0	3.1	2.9	10.0	8.6	1.4	2.0	-1.4	3.4	2.0
2. 21.(화)	6.0	3.2	2.8	11.0	8.7	2.3	1.0	-1.2	2.2	2.3
2. 22.(수)	6.5	3.4	3.1	10.0	8.7	1.3	3.0	-1.2	4.2	2.2
2. 23.(목)	5.5	3.4	2.1	8.0	8.7	-0.7	3.0	-1.0	4.0	3.0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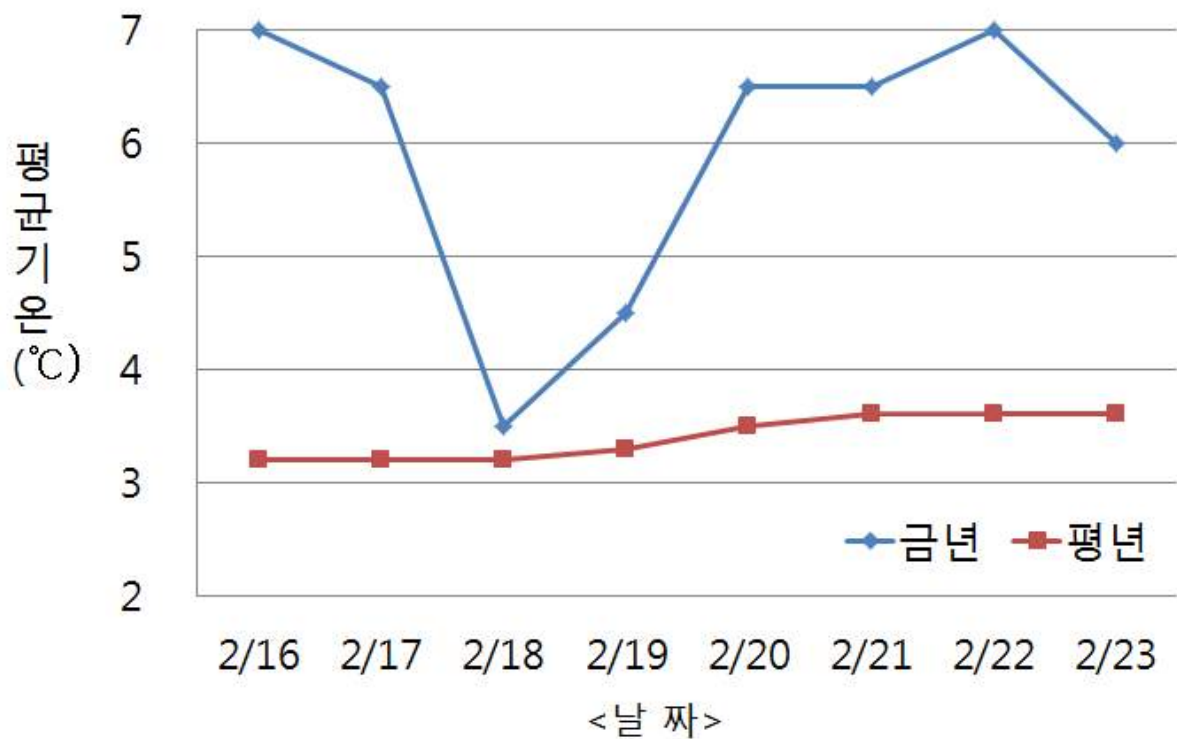




## ■ 기상청 중기예보(목포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5.9	3.4	2.5	9.6	8.4	1.3	2.3	-0.2	2.5	2.1
2. 16.(목)	7.0	3.2	3.8	13.0	8.2	4.8	1.0	-0.4	1.4	1.9
2. 17.(금)	6.5	3.2	3.3	8.0	8.1	-0.1	5.0	-0.3	5.3	2.1
2. 18.(토)	3.5	3.2	0.3	7.0	8.2	-1.2	0.0	-0.3	0.3	2.0
2. 19.(일)	4.5	3.3	1.2	10.0	8.3	1.7	-1.0	-0.2	-0.8	1.8
2. 20.(월)	6.5	3.5	3.0	10.0	8.5	1.5	3.0	-0.2	3.2	1.9
2. 21.(화)	6.5	3.6	2.9	11.0	8.6	2.4	2.0	-0.1	2.1	2.3
2. 22.(수)	7.0	3.6	3.4	10.0	8.5	1.5	4.0	-0.2	4.2	2.1
2. 23.(목)	6.0	3.6	2.4	8.0	8.5	-0.5	4.0	-0.1	4.1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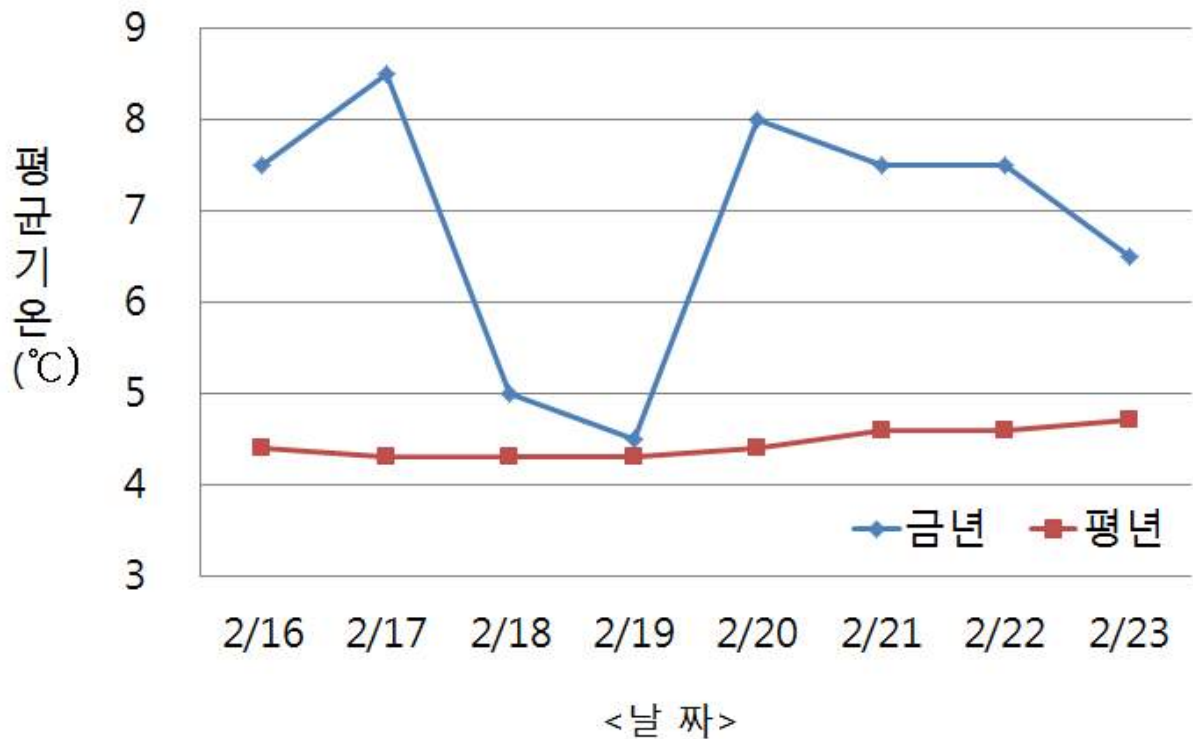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 기상청 중기예보(여수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6.9	4.5	2.4	10.3	8.6	1.6	3.5	1.1	2.4	2.1
2. 16.(목)	7.5	4.4	3.1	12.0	8.6	3.4	3.0	1.0	2.0	1.6
2. 17.(금)	8.5	4.3	4.2	11.0	8.5	2.5	6.0	1.0	5.0	1.9
2. 18.(토)	5.0	4.3	0.7	9.0	8.5	0.5	1.0	0.9	0.1	1.8
2. 19.(일)	4.5	4.3	0.2	9.0	8.5	0.5	0.0	0.9	-0.9	1.8
2. 20.(월)	8.0	4.4	3.6	12.0	8.7	3.3	4.0	1.0	3.0	2.3
2. 21.(화)	7.5	4.6	2.9	11.0	8.8	2.2	4.0	1.2	2.8	2.4
2. 22.(수)	7.5	4.6	2.9	10.0	8.7	1.3	5.0	1.3	3.7	2.1
2. 23.(목)	6.5	4.7	1.8	8.0	8.7	-0.7	5.0	1.4	3.6	2.5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2.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 품목별 동향 및 전망 [2017. 02. 07.~ 02. 13.]

#### □ 배추 : 수급조절 매뉴얼상 『상승경계』 단계 전망

- 동향 : 저장작업이 활발하면서 시장출하량 감소하여 전주(8,174원)대비 상승세 (9,521원/10kg)
- 전망 : 시세에 따라 노지출하와 저장작업이 병행되며 보합세 전망

#### □ 무 : 수급조절 매뉴얼상 『상승심각』 단계 전망

- 동향 : 설 이후 작업량 감소에 따른 시장 반입량 감소로 전주(17,581원)대비 상승(20,473원/18kg)
- 전망 : 산지 작업량 증가로 전주대비 소폭 하락 전망

#### □ 건고추 : 수급조절 매뉴얼상 『하락경계』 단계 전망

- 동향 : 재고 충분한 가운데 수요 정체로 전주(5,700원)대비 약보합세(5,620원/600g)
- 전망 : 특별한 수급변동 요인 없어 보합세 전망

#### □ 간마늘 : 수급조절 매뉴얼상 『상승경계』 단계 전망

- 동향 : 설 이후 특별한 소비요인 없어 전주 수준 유지(7,350원/kg)
- 전망 : 비축물량 판매 등 정부대책 영향으로 보합세 전망

#### □ 양파 : 수급조절 매뉴얼상 『상승경계』 단계 전망

- 동향 : 재고량 부족과 감모, 저장비용 증가로 가격은 전주(1,285원)대비 상승 (1,380원/kg)
- 전망 : 재고물량 출하조절 지속되며 보합세 전망



## 건고추 생산 및 산지동향, 가격동향, 수급대책

### □ 생산동향

- '16년 재배면적은 전년 및 평년대비 각각 7, 22% 감소한 32,179ha
- '16년 10a당 수확량은 전년대비 6% 감소한 266kg

### □ 산지동향

- 전년 및 평년대비 생산량 감소하였으나 수요 감소 및 이월 물량 재고 충분하여 시세 약세 지속
- '17년산 재배의향 금년대비 10%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건고추 가격하락과 인건비 상승으로 금년대비 약 10% 감소한 2만 9천여ha 전망

### □ 가격동향

- 2월 상순 건고추 도매가격은 5,600원으로 전월 5,701원/600g 대비 소폭 하락
  - (1월) 5,701원 → (2월 상순) 5,600원/600g, (평년 2월 8,367원)
- 정부 및 민간 재고물량 과다 등으로 평년대비 낮은 가격추세 지속 전망

### □ 수급안정 대책

-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산 대체용 공급 및 소외계층 무상지원 등
  - '13년산 비축물량 수입산 대체용 고추 가공업체 직배 진행
  - 푸드뱅크를 통해 800여톤 소외계층 무상지원('16. 11. 01.~'17. 02. 28.)

\*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7. 02. 13.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2/13)	1주일전 (02/0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 작 물	쌀(일반계)	20kg	31,800	31,800	31,900	36,200	42,333	↓ 12.2	↓ 24.9
	콩(백태)	35kg	172,000	177,800	177,800	149,250	158,963	↑ 15.2	↑ 8.2
	고구마(밤)	10kg	25,600	26,400	26,480	27,300	26,127	↓ 6.2	↓ 2.0
	감자(수미)	20kg	35,200	35,000	33,200	31,000	29,267	↑ 13.5	↑ 20.3
채 소 류	배추(월동)	1kg	1,020	1,020	1,012	740	555	↑ 37.8	↑ 83.8
	양배추	10kg	13,000	13,800	13,440	6,800	6,240	↑ 91.2	↑ 108.3
	오이(다다기계통)	10kg	31,667	30,667	36,600	36,917	45,772	↓ 14.2	↓ 30.8
	애호박	8kg	20,800	22,000	31,880	31,200	32,417	↓ 33.3	↓ 35.8
	건고추(화건)	60kg	560,000	560,000	570,000	780,000	836,667	↓ 28.2	↓ 33.1
	풋고추	10kg	56,000	63,000	60,520	91,550	86,010	↓ 38.8	↓ 34.9
	마늘(깐마늘)	20kg	147,000	147,000	146,600	160,250	111,667	↓ 8.3	↑ 31.6
	양파	20kg	26,800	26,600	25,280	32,900	20,580	↓ 18.5	↑ 30.2
	당근	20kg	56,800	60,600	74,920	24,850	22,217	↑ 128.6	↑ 155.7
	대파	1kg	2,440	2,440	2,312	3,185	1,824	↓ 23.4	↑ 33.8
	파프리카	5kg	34,400	33,400	31,120	33,400	35,640	↑ 3.0	↓ 3.5
	딸기	1kg	11,000	12,000	12,480	12,100	12,190	↓ 9.1	↓ 9.8
	토마토	10kg	37,000	38,800	37,040	31,150	34,277	↑ 18.8	↑ 7.9
	방울토마토	5kg	20,800	20,600	25,160	23,550	21,957	↓ 11.7	↓ 5.3
	수박	1개	18,900	17,000	13,640	19,300	18,407	↓ 2.1	↑ 2.7
과 일 류	사과(후지)	10kg	40,000	41,400	41,440	36,600	48,483	↑ 9.3	↓ 17.5
	배(신고)	15kg	40,000	39,400	40,160	44,750	45,210	↓ 10.6	↓ 11.5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2/13)	1주일전 (02/0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19,000	523,000	523,000	529,000	547,333	↓ 1.9	↓ 5.2
	느타리버섯	2kg	11,400	13,400	13,640	12,500	13,087	↓ 8.8	↓ 12.9
	새송이버섯	2kg	8,200	9,600	9,160	9,800	9,897	↓ 16.3	↓ 17.1
축 산 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888	7,591	7,879	8,249	6,513	↓ 4.4	↑ 21.1
	돼지고기(삼겹살)	100g	1,787	1,973	1,949	1,903	1,704	↓ 6.1	↑ 4.9
	닭고기	1kg	5,475	5,058	5,168	5,080	5,535	↑ 7.8	↓ 1.1
	계란(특란)	30개	7,945	8,400	9,512	5,515	5,591	↑ 44.1	↑ 42.1
	우유	1리터	2,529	2,529	2,529	2,549	2,474	↓ 0.8	↑ 2.2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7. 02. 13.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435 천원	5,435 천원	5,769 천원	- 0.0	↓ 5.8
	거세	6,103 "	6,304 "	6,713 "	↓ 3.2	↓ 9.1
송아지 (6~7월)	암	2,535 "	2,542 "	2,693 "	↓ 0.3	↓ 5.9
	수	3,103 "	3,108 "	3,271 "	↓ 0.2	↓ 5.1
육우(600Kg)		3,178 "	3,143 "	3,491 "	↑ 1.1	↓ 9.0
젖소수송아지(7일령)		129 "	114 "	196 "	↑ 13.2	↓ 34.2
돼지(110kg)		358 "	357 "	307 "	↑ 0.3	↑ 16.6
육계(원/kg)		2,165 원	1,784 원	1,745 원	↑ 21.4	↓ 24.1
계란(원/특란10개)		1,793 "	1,936 "	1,357 "	↓ 7.4	↑ 32.1
오리(원/kg)		2,400 "	2,333 "	1,667 "	↑ 2.9	↑ 44.0

※ 한우(거세우) 생산비 : 6,429천원/마리(△326)

\* '15년 생산비(5,658)-'15년 송아지 가격(2,332)+현재 수 송아지 가격(3,103)

- 육우 3,798, 돼지 297/110kg, 육계 1,278원/kg, 오리 1,944원/kg, 계란 1,051원/10개, 우유 763원/l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 4.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 순천시, 매실농가 날씨·재해 정보, 미리 문자메시지로 받아본다

- 농장 맞춤형 기상정보 서비스 2월 1일부터 제공 -

- 순천시는 매실 농장 상황에 맞는 날씨와 재해 정보를 인터넷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미리 알려주는 기상정보 서비스를 124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2월 1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 『농장 맞춤형 기상정보 서비스』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농장의 날씨 정보뿐만 아니라 재배 중인 농작물의 생육단계에 맞춰 기상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 『경고』 등 위험 단계별로 상황을 알려준다. 동시에 위험 단계에 따라 농가에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는 관리대책도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 또한, 순천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재원으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농생명산업기술개발 연구사업(ICT기반 병해충 구축사업)을 순천대학교, (주)순천엔매실, (주)엘시스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 이 연구사업은 ICT기반 매실 병해충 및 기상재해 방제 모델 개발로 매실농가에 생육시기별 병해충 정보와 방제적기를 제공하기 위한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2018년부터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 시 관계자는 “앞으로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매실농가의 기상정보 서비스 만족도와 요구사항 등 의견을 듣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순천시

## ■ 나주시, 결혼이주여성 아이디어로 출시된 『구기자배즙』 화제

- 농가에서 배를 생산, 나주천연색소센터에서 가공, 나주로컬푸드센터에서 판매 -

- 배로 유명한 나주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아이디어로 상품화 되어 출시된 『구기자배즙』이 지역의 6차산업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 미얀마가 고향인 결혼 이주 24년 차인 산산원씨는 주업인 배농사를 지으면서 구기자배즙 가공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지만, 제조기술과 인허가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의 지원으로 구기자배즙을 상품화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번 구기자배즙 상품화는 기존의 산업 제조설비에 농민의 아이디어가 결합하여 6차산업 제품화되었다는데 의미가 크며,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에서 가공·생산하고, 나주시 로컬푸드지원센터 매장에서 판매가 이루어져 배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배재배 농가의 6차산업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출시된 구기자배즙은 기존 규조토피터 방식의 맑은배즙 생산방식과 달리, 모노필라먼트(Mono Filament) 필터플러스 방식으로 제조하여 구기자 천연색소와 배즙의 고유 영양성분이 변성 없는 제품으로, 필터플러스 제조방식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배의 무기성분인 나트륨·칼륨·칼슘·배 식이섬유 등, 배 고유의 영양성분 함량을 증강시켜 피로회복과 면역기능 향상, 항산화 기능, 기침, 천식에 효과적인 성분이 함유된 구기자배즙을 만드는 식품제조 방법이다.

\* 출처 : 나주시



## ■ 곡성군, 토란 향토산업 육성사업 가속페달

-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농촌의 효자 작목인 토란의 최대 주산지가 곡성임을 알리고, 토란을 가공식품으로 개발해 고소득을 창출하고자 『곡성토란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2016년부터 활기차게 추진하고 있다.
- 새해에는 곡성 토란을 가공식품으로 개발하여 고소득을 창출하고, 곡성 토란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향토사업을 이끌어갈 (주)생자연, (주)미실란, 석곡농협, 곡성토란영농조합법인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토란 가공산업의 대표주자들은 토란 가공시설과 체험관광시설을 구축해 깐토란·토란대·토란선식·토란부각·토란 쿠키·토란초콜릿 등의 다양한 가공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 또한 곡성군민과 곡성을 찾는 관광객에게 토란을 재료로 한 토란 음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토란음식 개발 및 보급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해 토란빵 굽는 제과점, 토란음료 마시는 커피숍, 토란탕·토란갈비찜·토란육개장을 먹을 수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식당 등이 곡성의 토란홍보 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발돋움하고 있다.
- 2018년까지 추진되는 곡성토란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토란의 6차 산업화를 최종 목표로 세우고, 토란의 생산부터 가공·체험·관광 상품화까지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콘텐츠를 개발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토란으로 공감하고 교류할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지향하고자 한다.

\* 출처 : 곡성군

## ■ 해남군, 맥류 파종 지금이 적기! 2월 하순까지 완료하세요

- 봄 파종 3,000ha까지 확대, 현장지도 나서 -

- 지난해 가을 잦은 강우로 맥류 파종이 차질이 빚으면서 해남군이 봄파종을 통한 수급안정에 나서고 있다. 11월 한계기까지 해남군의 보리와 밀·귀리 등 맥류의 파종 면적은 계획 면적 5,500ha의 30% 가량인 1,830ha만이 파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이에 따라 해남군은 봄 파종 재배면적을 3,000ha까지 확대해 맥류의 수급불안을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기술 교육 및 현장 연사회 등을 개최하는 등 지도에 나서고 있다.
- 해남 지역의 맥류 봄 파종 기간은 2월 상순부터 2월 25일까지로, 적기 파종해 시비 및 배수 관리를 잘 한다면 가을 파종에 비해 수확량과 품질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농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봄 파종의 경우 파종 시기를 꼭 준수하고, 파종량을 가을 파종에 비해 20~30% 가량 늘려 파종해야 한다. 또한 가을 파종과 달리 웃거름 없이 밑거름 한번만 시비하면 되며 봄철 습해 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이와 관련 해남군은 지난 2월 3일 계곡면 사정리에서 맥류 재배 농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맥류 봄 파종 봄 조성을 위한 재배 기술 교육 및 현장연사회를 가졌다.
- 연사회에서는 적기파종과 잡초방제, 거름주기 등 재배기술 보급과 함께 트랙터 부착형 일괄파종기, 드론 등을 이용한 파종방법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 출처 : 해남군

## ■ 식감좋고 산뜻한 『무안 세발나물』 겨울철 입맛으로 인기

- 겨울철 틈새 작물로 육성해 농가소득에도 큰 기여 -

- 게르마늄이 풍부한 간척지에서 자란 『무안 세발나물』이 겨울 제철을 맞아 큰 인기를 끌면서 이달부터 본격 출하되고 있다.
- 세발나물은 비타민C와 엽록소, 식이섬유 등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베타카로틴·비타민·콜린 등의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다이어트와 항암, 노화방지 등 성인병을 예방하는 웰빙채소로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 이처럼 세발나물이 유명세를 타면서 농가 수익도 높아졌다. 무안군 운남세발나물영농조합법인(대표 서준일)의 경우 31농가가 8.2ha의 시설하우스에서 세발나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올해 매출목표가 11억원으로 10a당 1,3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올해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시설하우스 16ha에서 500여톤의 세발나물을 생산할 계획이며, 오는 4월까지 수확이 이어진다. 세발나물은 특히 한겨울에도 가온을 하지 않으며, 한번 파종하면 4~5회까지 수확이 가능해 그 어느 작목보다 소득이 높다
- 서준일 운남세발나물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세발나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벼농사와 비교할 경우 10배 이상의 높은 소득이며, 생산부터 출하·정산에 이르기까지 공동으로 이루어져 회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 무안군 관계자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세발나물을 선정하고, 공동작업장을 비롯해 저온저장고, 시설하우스 등 상품화를 위한 생산기반을 지원했다”면서 “체계화된 생산체계 구축으로 전국 최고의 세발나물 생산단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무안군

## ■ 완도군, 『완도자연그대로』 해변딸기 본격 출하

- 당도 높고 미네랄 풍부해 안심먹거리로 인기 -

- 청정한 바닷가에서 해풍을 맞으며 재배된 완도 해변딸기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다.
- 완도 딸기는 갯벌에서 불어오는 해풍을 맞고 자라 미네랄이 풍부하여 해변딸기라 불리며, 무농약 친환경농법으로 재배되어 겨울철 안전 먹거리로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특히 겨울철 해변딸기는 성숙기간이 50~60일 정도로 많이 걸리며 온도가 낮은 시기에는 야간의 호흡량이 적어 축적되는 양분이 많아져 과실이 크고 당도가 높다.
- 완도 딸기의 당도와 당산비는 각각 12°Brix와 24.7%로 높아 맛이 우수해 소비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해변딸기에는 다량의 안토시아닌이 함유되어 있어 암 예방과 시력 회복에 좋고, 다른 과일보다 비타민C 함량이 높아 5~6알이면 하루 필요한 비타민C를 모두 섭취할 수 있다.
- 완도군 관계자는 “겨울에 생산되는 완도 해변딸기는 품질이 좋아 소비자들에게 인기다”며 “완도자연그대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된 만큼 믿고 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출처 : 완도군





## ■ 영광군, 월동 후 맥류 재배관리 현장기술 지도 나서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해 가을 잦은 강우와 따뜻한 날씨로 12월 중순까지 늦게 파종하여 보리 생육이 전반적으로 불균일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현장기술지도에 나섰다.
- 맥류 생육조사 결과 적기에 파종한 포장에서는 따뜻한 겨울날씨 영향으로 어린 이삭이 형성되는 등 웃자람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11월말 이후 파종한 필지는 생육이 저조하여 생장점 동해가 우려되는 등 보리 생육이 균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겨울철 잦은 강우로 황화현상 등 습해 피해가 나타나 배수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영광군의 평균 보리 생육재생기는 2월 10일로, 올해처럼 파종시기가 다르고 생육이 균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생기를 전후하여 웃거름은 2회로 나누어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 보리밭이 노랗게 변하는 황화현상이 나오는 습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논두렁 주위와 포장 중앙에 배수구를 깊이 파고 논 양끝의 붓머리를 터주어야 한다.
- 한편 지난해 맥류 파종시기를 놓쳐 봄파종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일찍 파종하는 것이 유리하고 우리지역은 2월 중순부터 하순까지가 적당하며 파종량을 가을파종 보다 20~30% 늘려야 한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맥류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는 월동기와 생육재생기 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파종 시기별로 생육상황을 꾸준히 관찰하여 농가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영광군



## 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 국산 『라온파프리카』 종자 외국서 러브콜

- 멕시코 시범재배와 종자 수출 조건 등 협의 -

-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이상대)이 지난 2015년에 육성해 품종보호 등록한 미니파프리카 『라온레드』 등 3품종 종자를 수출하기 위해 이달 초 국내외 수출업 관계자가 모여 농업기술원 시험포장과 재배 농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 이번 종자 수출 협의는 『라온파프리카』 품종을 개발한 안철근 박사가 지난해 멕시코 종자박람회에 참관하여 기존 미니파프리카 보다 수량성이 높고 식감이 뛰어난 국산 『라온파프리카』 품종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이날 참석한 수출업체와 국산 『라온파프리카』 품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올해 5월경에는 미국 등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멕시코와의 재배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6.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 매실 해충 복숭아씨살이좀벌의 발생생태 및 방제적기

#### □ 개발기술 내용

○ 복숭아씨살이좀벌의 발생생태 및 방제적기 구명(전남 나주 기준)

- 성충 발생시기(매실크기) : 4상(개화 10일후, 직경 4mm)~5상(직경 17.7mm)
- 산란시기 : 4월 중순(직경 12mm)~4월 하순(직경 16mm)
- 방제적기 : 4월 중순부터 5일 간격 3회 적용약제 살포

※ 4월 하순 이후는 매실 핵 경화로 부화유충 침입불가

○ 성충방제에 효과적인 약제선발 : 6종

- 유기농자재 : 고삼 + 계피추출물, 식물추출물 + 목초액, 피마자유 등
- 화학농약 : 아세타미프리드수화제, 티아메톡삼입상수화제, 팬텀입상수화제



####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전국 매실 재배농가에 정보제공 및 대농민 교육, 상담자료로 활용

#### □ 기술개발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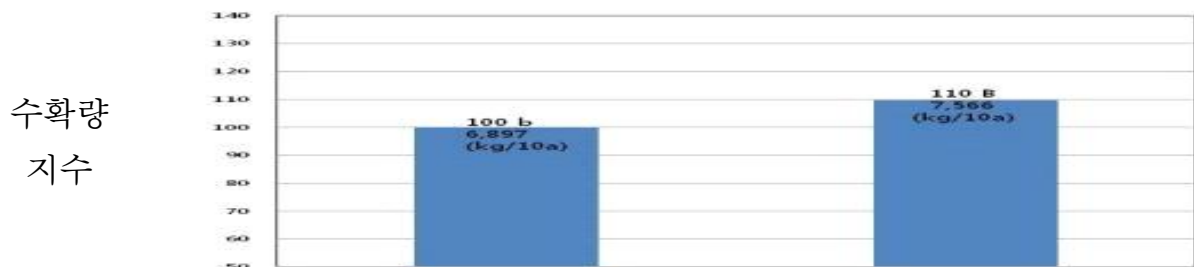
○ 적기방제에 의한 낙과피해 예방으로 생산성 향상 30%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최덕수

## ■ 착색단고추 연중생산 질소 감비 양액조절 방법

### □ 개발기술 내용

- 전날 누적일사량  $900\text{J}/\text{cm}^2$  이하일 때 당일 질소 감비 양액공급
  - 질산태 질소 함량을 30% 줄인 양액으로 급액
  - 질소 감비 시 칼륨부족량은 염화칼륨비료를 사용하여 양액조성
- 양액농축액 A, B액을 정상양액과 질소 감비 양액으로 2조 준비
  - 농축액 흡입 배관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배관하여 사용
- 여름재배 질산태 질소 감량에 따른 수량성(2014)



처리내용	관행	질소 30% 감량
평균과중(g)	135	145
착과수(개/주)	17.6	17.3
상품과율(%)	85.3	88.8

###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개별농가 양액조성 방법 기술지원 및 홍보
- 양액공급기에 프로그램화 하여 산업체 기술이전

### □ 기술개발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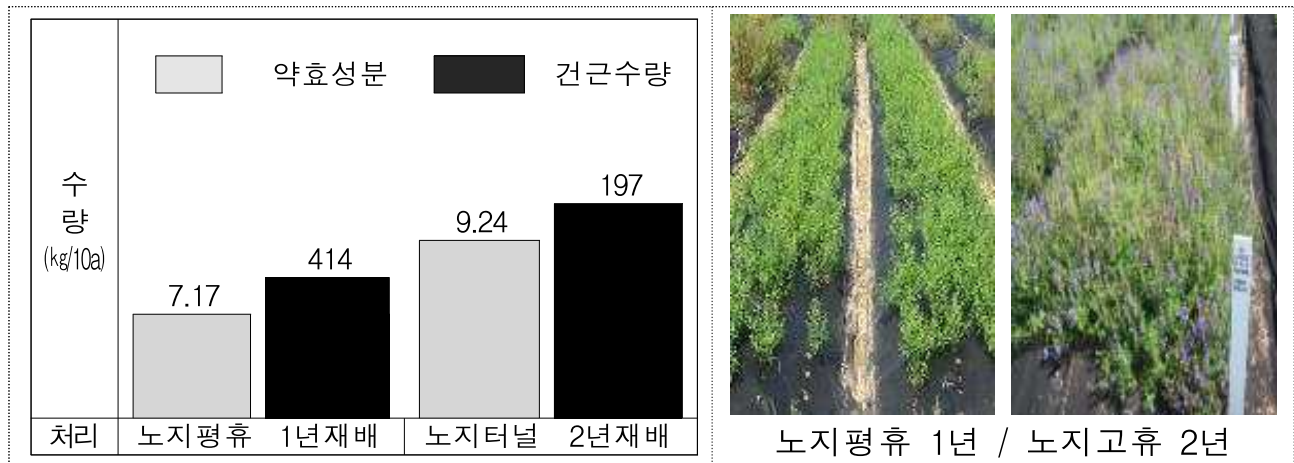
- 계절적 환경 변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 : 여름재배 9% 생산성 향상
- 수량증가에 의한 소득 증가 : 1,624천원/10a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김희곤

## ■ 황금 GAP 지침설정을 위한 노지 고휴 피복재배 효과

### □ 개발기술 내용

- 노지 터널 고휴 부직포피복 2년 재배가 노지 평휴 비닐피복 1년 재배 (건근중 414kg/10a, 약효성분함량 7.17%) 대비 건근중 39% 증수, 약효성분 함량 1.3배 증대되었음



###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두둑 90cm에 높이 20cm로 노지터널 고휴 흑색비닐피복 2년 재배가 유리함
-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고품질 생약재 생산기술 영농교육 및 홍보강화
- 황금 재배단지 및 작목반에 재배기술을 활용하도록 현장교육

### □ 기술개발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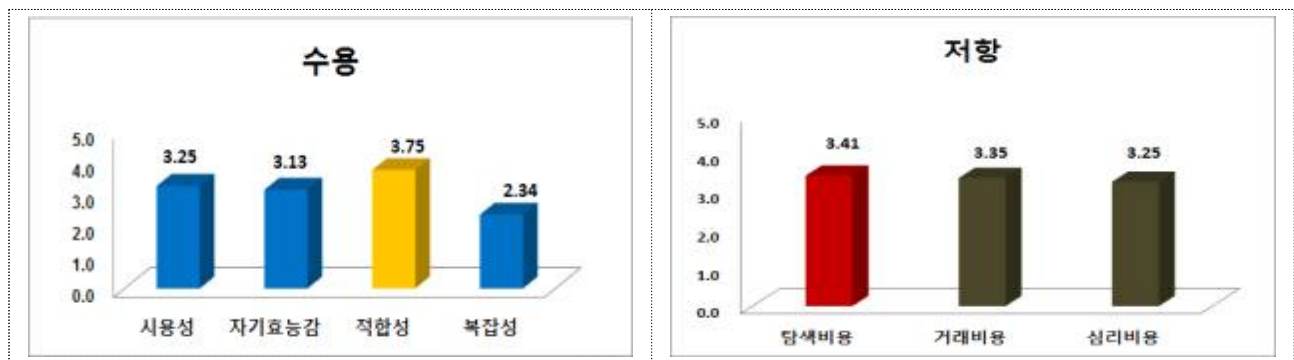
- 채종 및 건근수량 982,000원/10a 소득증대 효과
  - 손실 808천원(종자자재 558, 인건비 250) → 이익 1,790천원(채종 180, 건근중 1,610)
  - 상품가격 및 약효성분함량 증가 : 8,000원, 7.17% → 23,000원, 9.24%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소 김명석

## ■ ICT 복합환경 제어시스템 확산을 위한 농업인의 수용 의도 분석

### □ 개발기술 내용

- ICT 복합환경 제어시스템 확산을 위한 농업인의 수용의도에서 개인적 특성이 61.8%, 적합성 3.74점으로 가장 높음
- 확산사업 수용의도에 저항하는 영향으로 전환비용 98.7%, 탐색비용 3.41점으로 가장 높음



###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ICT 확산사업 수용의도가 높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
- 수용의도가 높은 농가 데이터를 거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ICT농가 활성화 전략수립

### □ 기술개발 파급효과

-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ICT 융복합 사업 대상자를 선정 시 적합성과 자기 효능감이 높은 대상자 선발로 생산비 절감 및 품질 향상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황인택



## ■ 울금과 비파열매를 이용한 발효기술 실용화 추진

- 울금의 쓴맛을 줄이고 비파열매의 기호성을 높이는 발효제품 개발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우리 도 특산자원인 울금과 비파열매를 이용한 발효기술을 도내 가공업체에 적용하여 실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우리 도 울금과 비파의 재배면적은 전국의 80%이상 차지하는 특산자원으로 최근 울금의 간기능 개선 효과, 항균 효과 및 비파의 항당뇨 효과 등 다양한 생리활성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가 보고되면서 소비자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그러나, 울금의 쓴맛과 비파열매의 단순한 단맛은 소비자의 선호도를 낮추는 등 가공현장의 애로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호성을 높이는 가공기술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 이에 전남농업기술원에서는 지난해 발효기술을 통한 울금과 비파열매의 기호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료의 효과적인 전처리방법을 정립하였고, 울금의 쓴맛을 줄이고 비파열매의 당함량 감소와 아울러 유기산 함량을 높이는 발효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올해는 발효울금과 비파열매를 이용한 가공제품을 개발하여 도내 가공현장에 실용화할 계획이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 2017년 영농현장 『농작업도 여성』 시대

- 트랙터·콤바인·이앙기 농작업과 고장수리까지 여성시대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전문 기능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한다. 이에 따라 오는 2. 16.~10월 까지 3회에 걸쳐 도내 여성농업인 75명을 각각 선발하여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실시되는 농업기계 전문교육은 주요 농업기계의 구조와 기본원리 농작업 운행요령, 분해 점검 정비에 이르기까지 이론과 현장실습을 통한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여성을 농업기계 전문 기능인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최근 농촌 인력의 고령화로 일손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의 영농참여가 증가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여성의 역할은 농업기계를 통한 영농작업 시 허드렛일 등 단순작업에만 국한되어 온게 현실이었으나 이번에 교육을 받은 여성농업인들은 영농현장에서 농업기계를 직접 운전하며 농작업은 물론, 점검·정비와 함께 경미한 고장은 수리까지도 가능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된다.
- 지금까지는 농번기에 남편 유고 시 농작업을 할 수 없어 적기 영농에 지장을 받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에 여성 농업기계 교육을 이수한 여성들은 남편 대신 농작업을 할 수 있고 부부 간 교대 작업으로 며칠씩 계속되는 무리한 농작업에서 오는 피로누적과 안전사고 발생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교육을 수료한 여성들에게는 농업기계 구입 융자금 및 각종 정책 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특전도 부여받게 할 계획이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 논에 폴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봄 파종 하세요

- 봄 파종 적기 2월 초~중순, 언땅에도 파종가능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지난해 가을 잦은 강우로 인해 겨울철 폴사료를 제때 파종하지 못했거나 생육이 불량한 곳은 봄에 파종하여 부족한 폴사료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가을 파종적기인 10월에 잦은 강우와 강수량 또한 195mm로 평년(47.2mm)보다 많아, 폴사료 재배계획 면적 49천ha의 76%정도에 그쳤다.
- 겨울철 대표적인 폴사료인 이탈리안라이그라스(IRG)는 가축이 잘 먹고 사료가치가 높아 농가에서 선호하는 폴사료로 봄 파종 재배 시 조생종 품종을 파종해야 조사료 수확 후 벼 2모작 이상 시기에 맞출 수 있다.
- 파종 시기는 2월 초·중순이 적당하나, 금년부터 새로운 파종 기술로 최신 드론 등을 이용한 항공파종으로 1일 20ha까지 가능하여 획기적인 노동력 절감을 할 수 있다. 파종량은 50~60kg/ha로 파종 전 밑거름으로 복합비료(21-17-17) 17포/ha를 주고, 파종작업 후 배수로를 설치하고, 1차 웃거름은 4월 초(2~3엽)에 요소비료 5포/ha, 2차 웃거름은 4월 하순경 요소비료 5포/ha을 하면 생산량이 늘어난다.
- 차성충 기술보급과장은 “겨울철 폴사료는 봄에 파종해도 3가지(비료, 적기파종, 배수로)만 잘 지켜주면 가을철 파종재배의 80~90%정도 수확을 얻을 수 있어 안정적인 물량확보와 농가소득 증대가 가능하고, 겨울을 지낸 폴사료는 눌러주기로 봄철 건조 피해를 예방하고, 배수로 정비 및 제때 웃거름 주기 등 재배관리에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입춘 지났으니 맥류 봄 파종으로 소득 올리세요

- 파종적기 2. 15~25일 / 가을파종 대비 파종량 25% 증량이 핵심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지난해 가을 파종기 잦은 강우로 맥류 파종을 제 때 하지 못한 관계로 재배면적이 감소되어 맥류 수급불안이 예상됨에 따라 빈 논이나 밭을 활용한 보리·밀 봄 파종 기술지원에 나섰다.
- 농업기술원에서는 우리지역 봄 파종 적기를 2월 15일부터 2월 25일로 정하고 늦어도 2월말까지는 파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 봄 파종은 농한기를 이용한 노동력 안배와 밭거름, 웃거름을 한번으로 가능하고 파종량은 10a 당 20~25kg으로 가을파종에 비해 25% 정도 증량해서 파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최근 농촌진흥청 연구결과에 따르면 맥류를 적기에 봄 파종하면 보리를 기준으로 가을파종에 비해 출수기는 약 12일, 성숙기는 약 10일 정도 밖에 늦어지지 않아 수확시기가 6월 20일경이 되며, 가을에 만파한 맥류보다 수량이 16% 증수된 것으로 조사되어 우리도 봄 파종 면적 4,300ha 파종 시 농가소득 74억원이 예상된다.
-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차성충 과장은 맥류 봄 파종은 “맥류 겨울철 재해회피, 경지 이용률 제고, 생산 안정화,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유지”등 여러 측면에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하면서 봄 파종을 적기에 해줄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 월동기 이후 마늘·양파 주요 관리기술

- 해남군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승)는 월동기 이후 마늘·양파 고품질 생산을 위한 당면 영농기술 지도에 나섰다.
- 2월 중·하순까지 1차 웃거름을 시용하는데 마늘은 2월 중·하순 (요소 17 + 염화加里 13kg/10a), 양파는 2월 중·하순 (요소 17.4 + 염화加里 5.2kg/10a)에 시용하고, 마늘·양파 웃거름 시용 시 기준량에 준하되 생육상태에 따라 가감하여 시비해야 하며, NK (18-0-18)비료는 질소질 기준 약 45kg/10a 시용기준이다.
- 주요 병해충 방제로는 양파 노균병은 연작지에서 발생이 심하므로 2월 하순~3월 상순부터 적용약제를 살포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확 후 병든 잎이나 줄기는 포장에 방치하지 말고 모아서 태워줘야 하며, 흑색썩음균핵병의 경우 3월 중·하순부터 전년 발생 지역 위주로 예방이 필요하며, 고자리파리, 뿌리응애의 경우 유충이 뿌리나 인경을 가해하여 아랫잎 부터 노랗게 말라죽게 되며 피해는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유충이 한 포기에서 수 마리 ~ 수십 마리 기생하므로 2월 중순경부터 포장관찰을 철저히 하고 발생 시 약제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주산지역 읍·면에서는 마늘·양파 안정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농업인 단체모임, 이장회의 등을 통해 고품질 작목을 생산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출처 : 해남군농업기술센터



## ■ 블루베리 과일 크기 키우면 경영비↓ 소득↑

- 농촌진흥청, 2월 가지 치는 시기에 착과량 조절 당부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블루베리 재배농가의 소득 증대와 비용 절감을 위해 작은 과실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당부하며 적절한 착과량 조절 방법을 제시했다.
- 블루베리는 다른 농작물과 비교해 예정지관리 비용뿐만 아니라 수확 비용이 전체 생산비용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 따라서 열매가 많이 달리면 작은 과실 비율이 높아져 수확기간과 노동력이 늘어나 경영비 상승으로 이어진다.
- 일반적으로 블루베리는 과실 무게가 0.5g 늘어날 때마다 시간당 수확량은 약 2배 정도 늘면서 남아있는 과실이 줄어 수확기간 역시 줄일 수 있다.
- 블루베리 착과량 조절은 겨울 가지치기 시기인 2월에 해야 하며 나무 원줄기(주간부)의 나이를 고려해 결정한다.
- 원줄기 나이가 2년생 이하 어린 가지는 가지치기 시 꽃눈이 50%이상 포함되도록 잘라준다.
- 2년생 이상 6년 이하 가지는 나무자람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지마다 아래에서 위쪽으로 30%의 꽃눈을 손으로 훑어준다.
- 6년 이상 된 가지는 기본적으로 가지 전체를 잘라줘야 한다. 다만 그 가지를 좀 더 사용하려면, 열매가지의 위부터 아래로 30%의 꽃눈 또는 꽃눈이 포함된 윗부분의 가지를 잘라준다.

- 이렇게 착과량을 줄이면 수확하는 총 과실 수는 다소 적어든다. 그러나 과실의 평균 크기가 커져 시간당 수확량이 높아지면서 수확 인건비가 줄어든다.
- 남부형 하이부쉬 블루베리 품종인 '레가시'의 경우 가지치기를 잘하면 평균 과실크기를 20% 이상 키워 수확 인건비를 30% 이상 줄일 수 있다.
  - 또한 상품성이 없는 1.0g(13mm) 이하의 작은 과실 비율을 10% 이하로 줄이면서 우수상품비율은 90%(850kg/1,000㎡) 이상 차지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 남해출장소 김홍립 농업연구사는 “블루베리 재배 농가의 수익 증대와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작은 과실 비율은 낮추고 착과량 조절을 통해 큰 과실 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 과수재배 농가, 나무 심을 준비하세요

- 주말농장 등 초보농업인 과수나무 심기 늦어도 3월 중·하순까지 마쳐야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겨울이 짧아지고 봄이 일찍 시작하므로 과수재배 농가의 나무심기는 3월 중·하순까지 마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 보통 나무 심는 시기를 식목일(4월 5일) 전·후로 알고 있지만, 귀농인, 초보농업인, 주말농장이나 가정 화단에 나무를 심는 일반 소비자들은 이보다 앞서 심어야 한다.
- 낙엽과수인 사과나무는 가을이 되면 생리적 활동이 점차 둔해져 겨울동안 휴면(休眠)하고 봄이 되면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 이른 봄 뿌리가 활동하기 이전에 토양이 녹으면 즉시 나무를 심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과나무의 수액(樹液) 흐름은 4월부터 급격히 증가해 5월과 8월에 최대치를 나타낸다. 따라서 나무의 수액 흐름이 활발해지기 이전인 2월 하순부터 3월 중순에 나무를 심는 것이 안전하다. 늦어도 3월 하순 이전엔 끝내야 한다.
- 봄철(식목일) 평균기온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지난 70년 전과 비교했을 때 2~4℃ 상승했다. 4월의 평균기온은 이미 10~12℃로 높아져 나무의 꽃과 눈이 터기 시작한다.

- 이 시기에는 뿌리도 같이 활동을 시작해 잔뿌리가 생기고 있으므로 뿌리를 잘못 건드리면 양·수분 흡수 및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나무의 생장이 어렵다.
- 사과·배 등 과수나무를 심을 곳은 경사(5~7°)가 있고 심는 방향은 남북으로 하는 것이 햇볕을 많이 받는데 유리하다.
- 경사지는 생육기간 중 그늘지는 면적이 적어 햇볕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며, 자연재해(동해, 서리피해 등)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나무 심는 방향은 남북으로 하는 것이 햇볕을 더 많이 받는다.
- 나무 심는 거리를 정할 때는 과수 품종, 대목의 왜화도, 나무 모양, 토양의 비옥도, 작업성(농기계 이용), 재배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M.9 대목 사과나무는 4×2m로 심으며, Y자 수형의 배나무는 6×3m로 심는다.
- 나무를 심을 때는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심은 이후에는 나무 주위에 골을 파고 뿌리 부분에 물기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주당 10~20L의 물을 주고 묘목을 지주에 고정해 준다.
- 농촌진흥청 과수과 정재훈 연구사는 “나무 심기는 과수원 농업 경영의 첫걸음인 만큼 신중히 정성들여 준비해야 하며, 이른 봄 토양이 녹으면 즉시 실시하고 늦어도 3월 중·하순까지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7. 정책 동향

### ◆ 농식품 가공기업에 1% 저리 융자 혜택

- 전남도, 30개 업체에 90억원 규모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
- 전라남도는 30개 농식품 제조업체에 농어촌진흥기금 90억원을 1% 저리로 융자 지원해 경영을 안정시키고, 품질을 고급화하는 등 농식품 가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지원 대상자는 65세 이하로 전남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전남지역 사업장에서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해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을 제조·가공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 등이다.
- 지원 분야별로 시설자금의 경우 가공공장 신축 및 증설, 자동화·현대화 등 시설사업 확충에 지원된다. 운영자금은 제품 생산·판매를 증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원료 구입, 상품 포장디자인, 용기 개발, 품질 개선 등의 사업비로 지원된다.
- 융자금 운용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이다.
- 이춘봉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최근 소비시장 위축 등 어려운 여건에 있는 전남지역 농식품 제조업체의 안정적 생산 기반 확충과 제품 경쟁력 확보는 물론 소득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전라남도는 지난해에도 24개 업체에 60억 9천 300만원을 지원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식품 제조업체의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에 기여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 전남도, 여성 농업인 전문 인력화 나선다

- 양성 평등 농업·농촌 등 5개 분야 46개 과제 -

- 전라남도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및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 계획(2016~20년)』에 따라 여성농업인 권익 보호, 전문 인력화 및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2017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세웠다.
-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 공동 경영주 등록을 위한 홍보 강화와 성인지 교육 확대 및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을 지원하고 농정 관련 각종 위원회, 농협 조합원 및 임원에 여성 참여 비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여성농업인 노동 부담이 완화되도록 여성 친화형 농기계 임대 사업 및 농기계 사용 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여성 농업인 소규모 창업 지원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등을 추진해 여성 농업인 직업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 여성농업인의 마을리더과정 참여 및 여성농업인 단체 육성, 재능나눔 활동, 농촌체험마을 여성 사무장 채용 등을 통해 농촌현장에서 여성의 역할이 확대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올해 처음 시행되는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생활이 윤택해지도록 하며,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고령 영세 여성농업인을 위한 방문건강관리, 농촌보육시설 개선 및 확대 등으로 복지문화 서비스도 강화한다.
- 다양한 농촌 여성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이민여성,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및 여성대학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 출처 : 전라남도

## ◆ 전남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100억 투입

- 나주 마한농협 등 5곳... 농산물 유통 활성화 기대 -

- 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건립에 100억원을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49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며, 사업 대상도 2개소에서 5개소 늘었다.
- 사업 대상지는 나주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을 비롯해 나주 마한농협, 화순 전남생약조합, 함평 참좋은영농조합법인, 영광 영광농협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시설 및 장비를 교체해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
- 특히 지역별 특화품목인 배·멜론·양파·고구마·약용작물 등 농업인들이 행함으로서 유통단계 축소와 물류 효율화 등으로 농산물의 부가 가치를 높이고 농가 경영비를 절감해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보탬이 될 전망이다.
- 사업비는 국비 33억원을 비롯해 도비와 시·군비 33억원 등 총 66억원이 보조로 지원되며, 자부담은 34억원이다.
- 전라남도는 1992년부터 2016년까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94개소에 2천 529억원을 지원했으며, 2018년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시·군을 통해 예비 사업자 신청을 받고 있다.

\* 출처 : 전라남도

## 8. 해외 농업정보

### ◆ 농촌진흥청, 아시아 유전자원관리 전문가 양성한다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6일부터 13일까지 태국 농업청(DOA)에서 『아시아 농식품기술협력 협의체(이하, AFACI)』 회원나라의 유전자원 전문가 양성을 위해 『아시아 유전자원관리 국제훈련(이하, 훈련)』을 실시했다.
-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훈련은 방글라데시·부탄·캄보디아·필리핀 등 AFACI 13회원나라 26명이 참가한다.
- 훈련은 식물유전자원의 수집·증식·특성평가 등에 대한 이론교육과 조직배양, 종자품질관리 등 실습교육으로 실시하며, 교육진행은 한국 등 5나라 21명의 강사가 맡는다.
- 한편, AFACI는 아시아의 식량문제 및 농업현안 해결을 위해 2009년 11월 한국 주도로 출범한 협의체이다.
- 회원나라는 방글라데시·부탄·캄보디아·인도네시아·키르기스스탄·라오스·몽골·미얀마·네팔·필리핀·스리랑카·태국·베트남·한국 등 총 14나라다.
- 농촌진흥청 이석영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은 “이번 훈련은 아시아 개발도상국 유전자원의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을 공고히 하는 자리이다”라고 말했다.
- 또한 “앞으로 아시아 생물다양성의 안전 보존 및 이용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 우리 농업기술로 캄보디아 최초 감자재배 성공

- 농촌진흥청, 현지 적응력 뛰어난 적합 품종 개발과 연구 진행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 KOPIA캄보디아센터는 3일 캄보디아 북부에 위치한 몬돌키리(Mondolkiri)주 센모노롬시의 농가 포장에서 감자 수확 현장 연사회를 개최했다.
- 이번 연사회는 KOPIA캄보디아센터와 캄보디아 왕립농업대학교(Royal University of Agriculture, 이하 RUA)가 협력해 현지에 적합한 감자 품종을 개발해 시험재배하면서 맞는 첫 번째 수확이다.
- 이 자리에는 RUA 나오 분탄 총장과 관계 농업공무원, RUA 대학생, 농업인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캄보디아 최초로 모양과 크기가 제대로 된 감자가 수확되는 모습을 보면서 농촌진흥청과의 기술협력 성과에 대단한 만족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 연사회가 열린 포장은 해발 710m의 고산지대로 감자재배에 적합한 서늘한 기온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다. 지난해 10월 말 3,000m<sup>2</sup>의 면적(재식거리 40×35cm, 21,400주)에 베트남 품종 'PO-7'을 심어 95일 만에 5,400kg을 수확했다.
- 감자는 쌀·밀·옥수수과 함께 세계 4대 식량작물로 병해충 방제만 잘하면 다른 작물들에 비해 많은 수확량을 기대할 수 있다.
- 캄보디아의 경우 감자재배가 시급한 실정이지만, 기후, 토지 등 재배에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베트남 등 이웃 나라에서 소비량의 대부분인 2,400여톤을 해마다 수입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따라 KOPIA캄보디아센터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12만달러의 사업비를 투입, RUA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캄보디아에 적합한 감자 품종 개발을 위한 현장실증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KOPIA캄보디아센터 방진기 소장은 “몬돌키리 지역에서 처음 추진한 감자 시험재배가 1ha당 18톤을 수확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둬 현지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전했다.
- 또한 “앞으로도 캄보디아 농업현장에 기술지도 및 보급·확산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RUA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의 전문가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 농식품부, 식량원조협약(FAC) 연내 가입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식량원조협약(FAC, Food Assistance Convention) 연내 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동 협약은 1967년 Food Aid Convention의 2012년 개정협약으로 세계 식량안보 증진과 개도국 대상 식량지원을 목표로 미국·EU·캐나다·일본·호주 등 14개 국가\*가 가입한 협약이다.

\* 호주·EU·일본·미국·캐나다·오스트리아·덴마크·핀란드·룩셈부르크·러시아·슬로베니아·스페인·스웨덴·스위스

○ 정부의 협약 가입결정으로, 국내 공급 과잉인 쌀의 체계적인 해외 원조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의미가 크다.

○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무력분쟁 발생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고, 에볼라 바이러스 등 신종전염병이 창궐하여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체 ODA 대비 인도적 지원 비중은 교통, 보건, 공공행정 등 타 분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그간 식량원조 등 인도적 지원 확대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 협약을 통한 한 해 지원 규모가 30억달러에 이르는 만큼, 주요 원조국들의 경험 공유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수원국 원조 물량 등을 사전에 조율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원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 또한 수원국 입장에서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식량 원조를 지원하여 전 세계적인 화두인 식량안보 증진과 기아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게 된다.
- 농식품부는 향후 예산 당국과 협의하여 최적의 공여 물량을 결정하여 조약의 국내 가입 절차를 완료한 이후, FAC 사무국에 가입신청서 제출 및 가입승인, UN 사무국에 기탁함으로써 협약에 최종 가입하게 된다.
- 농식품부는 연내 가입 절차를 마무리 하고, 2018년부터 협약에 따른 식량원조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탈바꿈한 최초의 국가”라며, “이번 협약 가입으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쌀이 빈곤국에 희망을 주는 매개체가 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관계부처 및 국제기구와 협의하여 필요한 곳에 필요한 물량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7. 2. 13.(시카고 선물거래소)

지난 한 주간 상승세를 기록한 밀, 옥수수, 대두 선물 가격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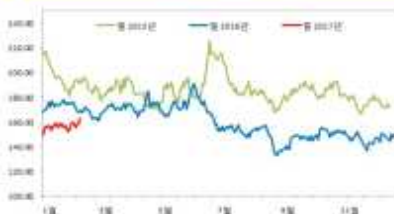
구분	기준일 ('17.2.10)	전일대비	전월평균 ('17.1)	2016 평균
밀	164.98	▲1.3%	156	160
옥수수	147.40	▲1.4%	142	141
대두	389.11	▲0.8%	380	363

주)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저색연질밀: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옥수수, 대두:3월물) 정산가격임.

단위: US\$/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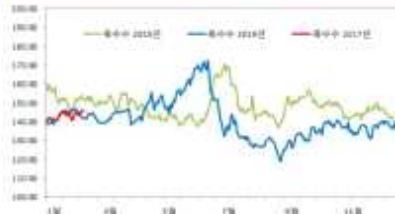


밀 선물시장 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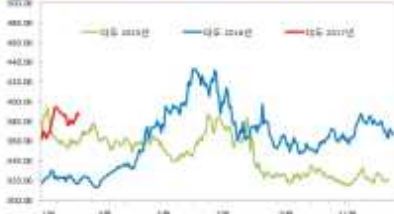
시카고 선물 거래소 밀 선물 가격은 전일의 상승세를 이어가며 1.3% 상승 마감하였음. 수급 보고서 발표 이후 예상보다 적은 공급량 전망치 가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또한 제고량 전망치도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에 지지를 더하였음. 부차자들이 대규모 매도 포지션을 취한 것 또한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옥수수 선물시장 시황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옥수수 선물 가격은 목요일 하락세를 보인 이후 다시 회복세를 보이며 전일 대비 1.4% 상승 마감하였음. 수급보고서에서는 최근 에탄올 사용량 증가를 반영하여 옥수수 기단 제고량 전망치를 감소하였음. 지난 한 주간 옥수수 선물 가격은 1% 이상 상승하였음.

대두 선물시장 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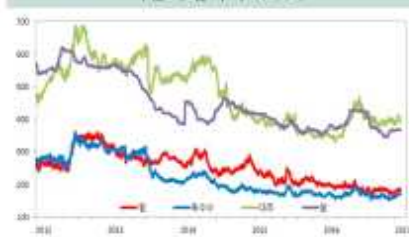


시카고 선물 거래소 대두 선물 가격은 수급보고서에서 수확량 감소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장 초반 하락하였으나 다시 상승세를 회복하며 전일 대비 0.8% 상승 마감하였음. 중국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미국산 대두에 대한 수요가 활발해지면서 지난 달 중국산 대두 수입이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지난 한 주간 대두 선물 가격은 2.4%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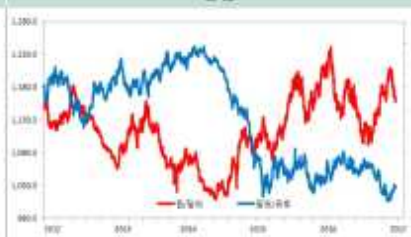
## 관련동향

- 타이트한 적재 용량으로 인해 밀 현물 수출 프리미엄은 상승세를 이어감.
- 10일 국제유가는 산유국의 높은 감산 이행률, 식유 수요 증가 전망 등으로 상승했고, 미 원유 시추기수 증가, 미 달러화 강세 등은 상승폭을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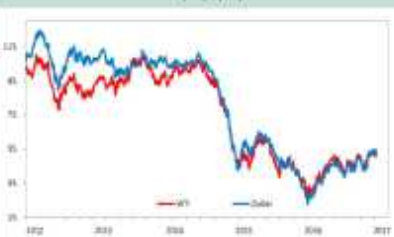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193	환율	원/달러	1,145.7
	옥수수	170		달러/유로	1,065.6
	대두	404	국제유가	WTI	53.86
	쌀	355		Dubai	53.78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3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7.02.09(수출가격), '17.02.10(환율), '17.02.10(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Daily World Grain Report

E-mail : wonjeong@krei.re.kr (해외곡물시장 담당자)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 9.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전문농업인 육성 교육 개시

- 전남농기원, 현장중심 전문기술교육 등 84과정 운영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미래농산업을 이끌어 갈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수출농업, 스마트팜, 작목별 생산비절감, 유기농업, 귀농귀촌 등 금년에 총 9분야 84과정 3천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올해는 배·사과 등 중·소과 재배과정, 농산물 수출과정 등 새로운 소비성향과 시장변화에 맞춰 다양한 분야의 과정을 신설하였으며, 여성·청년·귀농창업 등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및 창업기반조성 등 도정 핵심과제 교육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중심의 농식품 6차 산업 분야에 가공·유통·체험·음식·관광 등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였다.
- 특히 스마트팜 및 신기술 교육으로 드론, 농업용 로봇, 시설원예, 사물인터넷(IoT)의 농업활용 과정 등을 신설하여 최첨단 농업기술을 농업에 접목시켜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업인들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 2. 13.~2. 17.까지 5일간 실시하는 귀농·귀촌인을 위한 약용작물 과정을 시작으로 2월에는 양봉과 한봉, 여성농기계, 드론 활용기술, 쇼핑몰 구축 등 7개 과정을 개설하였으며, 12월말까지 매달 7~10 과정을 운영한다. 자세한 교육일정 및 내용은 전남농업기술원 홈페이지([www.jares.go.kr](http://www.jares.go.kr))를 참조하면 된다.



-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전남농업기술원 홈페이지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교육개시 10일전까지 신청하되, 일부 인기 있는 과정은 조기에 마감되는 점을 감안하여 1개월 전에는 신청을 해야 한다.
- 전남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인의 애로기술 해소 및 영농편의 도모를 위해 홈페이지에 사이버 영농상담실(묻고 답하기)을 개설하여, 농업인이 영농 중 애로기술을 질의할 경우 전담지도사가 전화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해주며, 필요할 경우 현장방문을 통해 컨설팅도 해준다.
- 이뿐 아니라 홈페이지에는 주간농업정보, 청년창업정보, 품목별 기술정보, 병해충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남농업기술원 앱을 설치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 전남농기원 · 광주과학기술원과 연구개발 업무협약 체결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지난 2월 9일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소장 이병하)와 광학기기를 이용 신속하고 정확하게 농작물 병을 진단하거나 농경지 토양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등 첨단 광학분야 기술을 농업분야에 접목하는 기술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업분야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작물병에 대한 신속한 진단이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농경지 토양 분석 진단장비 개발에 관한 상호 연구개발 협력방안과 개발된 장비를 사업화하기 위한 연구시설 및 인적자원 공동 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김희권 소장은 우선 “전남지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딸기에 심한 피해를 입히는 탄저병을 조기에 진단하여 농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간이 진단기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경지 토양을 실시간 분석하는 장비 개발 등 농업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 24절기 가운데 두 번째 절기 우수 (雨水)

- 우수(雨水)는 입춘과 경칩 사이에 있으며 24절기 중 두 번째 절기로 양력 2월 18일이며 눈과 얼음이 녹는 시기입니다.
- 음력으로서는 대개 정월에 들며 우수라는 말은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말이니 이제 추운 겨울이 가고 이른바 봄을 맞게 되었다는 것이다.
- 『우수 뒤에 얼음같이』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는 아무리 춥던 날씨도 얼음이 녹고 날이 풀린다는 뜻이고, “우수 경칩에 대동강 풀린다”는 속담은 우수와 경칩이 지나면 아무리 춥던 날씨도 풀린다는 뜻이다.
- 조상들은 우수의 입기일 이후 경칩까지 보름을 5일간 세분화하여 그 특징을 구분하였는데, 입기일 이후 5일은 수달(水獺)이 물고기를 잡아다 늘어 놓는다고 하였고, 중간 5일은 기러기가 북쪽으로 날아가는 시기라 하였으며, 마지막 5일은 초목에 싹이 트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 우수가 되면, 본격적으로 농사 준비를 시작하여 가장 먼저 지난해 받아놓은 씨앗들을 모두 꺼내 없는 것은 미리 확인하고, 농사를 지을 밭을 가꾸기 위해 밭두렁을 태우곤 했는데 그 이유는 겨우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각종 벌레를 구제하고, 해충 알을 없애기 위해서이다.

○ 또한 장 담그는 일은 농가의 살림에서 매우 중요한 일로, 우수가 있는 음력 정월에 담근 장을 최고로 인정해 준다. 이유는 음력 정월에 장을 담그면 40일 뒤인 4월 청명과 곡우 사이에 장물과 된장을 가를 수 있어 그때부터 된장이 가장 발효하기 좋은 날씨로 맛있게 잘 익기 때문이다.

○ 우수는 대보름이 든 달이기 때문에 지난해 농사에서 지은 쌀·팥·조·콩·수수 등 곡식으로 오곡밥을 먹고, 작년 한 해 계절별로 말린 묵은 나물을 물에 불려 삶아 갖은 양념에 무쳐 함께 먹었다. 그리고 냉이·달래·봄동 같이 언 땅을 녹이며 올라오는 봄나물을 먹었다.

\* 출처 : 네이버지식정보





주간

**전남농업정보**

123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58213  
Tel. 061-330-2593 Fax. 061-335-4199